일 주 문



몽골유치원 준공

월주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스님은 8월 31일 몽골 항올구에서 분황유치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황혼기 나도출가학교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황혼기 나도출가학교를 진행한다. (033)339-6777



군종교구 철원 호국위령제

혜자 조계종 군종교구장 스님은 9월 8일 108산사순례기도회와 함께 철원 도피안사에서 호국위령제를 개최했다.



돌맞이 마정수기 법회

원명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9월 24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돌맞이 마정수기 법회를 개최한다.

(02)3218-4801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한마당

심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스님은 9월 9일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2017청소년문화재지킴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창립 19주년 기념식

박흥우 국제포교사회장은 9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창립 19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 · 중 · 일 장애인 예술축제

방귀희 한 · 중 · 일장애인예술축제 대회장은 9월 13일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 5층에서 '나를 넘어, 우리를' 제작발표회를 개최한다.

국제연꽃마을 베트남 직업훈련원 준공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회장 원명)은 8월 18일 베트남 광남성 땀끼시 한국형 종합복지타운 내 직업훈련원 강의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국제연꽃마을 회장 원명 스님과 임원진, 윤초희 동국대 교수, 김일명 교수, 구미공과대학 김영식 전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범패 교육 자아완성 밑거름"

Interview

해동불교범음대학 학장 대은 스님



사의버강의 · 집중교육 운영

2000여 스님 · 법사 배출

"불교의식은 바로 불교생명"

"30년 가까이 불교전통의식을 교육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사이버 강의와 6개월 집중 교육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을 접했으면 합니다."

하반기 수강생 모집에 나선 해동불교범음대학 학장 대은 스님은 "한국불교는 오랜 세월 전통의식이 발달해왔으나, 이 조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해방 후 혼란과 불교법난으로 맥이 쇠퇴해 소수의 범음 범패 스님과 일부 사찰 전통의식만이 남았다"며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을 통해 이러한 맥을 잇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스님은 범음 범패 의식이 불교 수행전통과도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예로부터 불교 이상을 실현하는데는 몇 가지 문이 전해 내려온다"며 "참선을 위주로 하는 경절문, 즉 선문과 간경 위주의 교문, 밀교, 그리고 정토의 염불문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정토 염불문은 그 중 타력신앙이면서 자력신앙으로 모든 계층에 보편적으로 권할만한 가르침이다. 해동불교범음대학은 염불문 가르침에 입각해 시대흐름에 맞춰 범음 범패를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동불교범음대학은 1987년 조계종 원로 이두 스님이 인간문화재 송암 스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설립했으며 1991년 대학 부설 불교의식교육원이 만들어지며 본격적인 대중교육에 나섰다. 대은 스님은 초대 교육원장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한 해동불교범음대학 역사의 산 증인이다.

해동불교범음대학은 태고종 인가 대학으로 3개월 마다 불교전통 의식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 3개월, 중급 3개월 고급(작법) 6개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0여 스님과 법사를 배출했다.

여기에 스님은 해동범음단을 통해 불교무용 범무 공연을 펼치고 사이버 강좌 시스템과 첨단교육 교재를 도입하는 등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타 대학에서 2년 넘게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6개월 간에 압축하여 전수하고 이를 시연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체득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님은 "지난 수세기 인류는 엄청난 과학문명을 발달 시켰지만 인간 내면 타무와 인간성 회복에서는 오히려 퇴보하였다"며 "미혹과 무명 업장으로 황폐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종교에 있어 의식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종교의식이 정확한 의식 절차에 의해 여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 종교는 자칫 비종교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종교의 근간인 의식절차부터 제대로 배워 여법하게 집전하는 것이 바로 모든 포교 전법, 수행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전통의식 체계화 및 대중화에 업적을 남겼다고 자부한다. 많은 이들이 범음대학을 통해 불교전통의식을 이해하고, 습득해 자아완성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타인에게도 공덕이 되는 선근종자를 심는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2)741-0495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에 관심을"

임정애 생명존중운동본부 본부장



연명의료법 2018년 전면 시행

10월 경 봉사자 교육 실시

유관기관 협력 필요성 제시

호스피스는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의학적인 판정을 내린 경우 평안한 임종을 할 수 있도록 봉사자와 종교인, 의사와 간호사 등이 복합적으로 접근해 물적 · 심리적으로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하 연명의료법)이 2018년 2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호스피스 봉사자 배출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임정애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운동본부 본부장(건국대 마취통증학과 교수)이 있다.

임 본부장은 10월 중순 불교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10여명의 강사진까지 구축한 상태다.

임 본부장은 "많은 불자들이 봉사는 하지만 정작 호스피스 현장에서는 봉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확히 호스피스의 개념을 숙지하고, 불교호스피스를 펼치기 위한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생명존중운동본부는 올해 3월 창립 이후 5월 총 4회에 걸쳐 '불교사상과 호스피스'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 진행된 호스피스 강의에서는 불교호스피스 사상을 강의하기 어려워 이뤄진 자리다.

전신인 웰다잉운동본부에서는 웰다잉 교육을 통해 6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해 50여개 어르신 돌봄기관에 파견한 바 있다.

임 본부장은 "연명의료법 전면시행으로 호스피스 교유그 강사 양성, 그리고 봉사자 교육 모두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가장 먼저 교육을 진행해 불자 저변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9월 진행 예정인 교육프로그램이 한 달여 미뤄졌지만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병원전법단, 종립병원 등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한 실정"이라며 "호스피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시점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해나가기 위한 노력에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갑수 종무실장 조계종 예방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은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서 자승 스님은 김 종무실장에게 임명 축하인사를 전한 뒤 "종단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종무실장은 "소통 역할을 하겠다. 종단이 문체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부처님오신날 명칭 변경이 10월 중 공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삼광사, 부산복지 위해 나섰다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는 9월 1일 경내 법화삼매당 앞에서 천태복지재단 부산지사 현판식을 개최했다. 삼광사는 17년간 천태종이 운영하는 천태복지재단 부산지사를 운영해왔다. 이번 현판식은 삼광사가 진행하는 자비 나눔을 시대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역에 제공해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지다.

현판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주지 세운 스님과 부산불교복지협의회 회장 정여 스님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용인 대덕사, 기흥구에 쌀 기탁



용인 대덕사(주지 탄원)는 9월 5일 백중을 맞아 기흥구청에 쌀 1,000kg과 라면 30박스를 기탁했다. 대덕사는 이에 앞서 대덕사는 기흥구청과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쌀 300포(10kg 기준)를 기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대덕사를 방문한 장경순 기흥구청장은 신도들의 십시일반 보시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탄원 스님은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마음을 내겠다"고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